

제4절 중남미권

1. 중남미권 출판 시장 개요

2010년 중남미 출판 시장은 55억 5,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북반구의 대부분 권역에서 2009~2010년 사이에 출판 시장 규모가 축소된 데 반하여, 중남미권은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0~2015년 연평균성장률은 3.5%로 역시 권역별 평균 성장률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66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28> 중남미권 출판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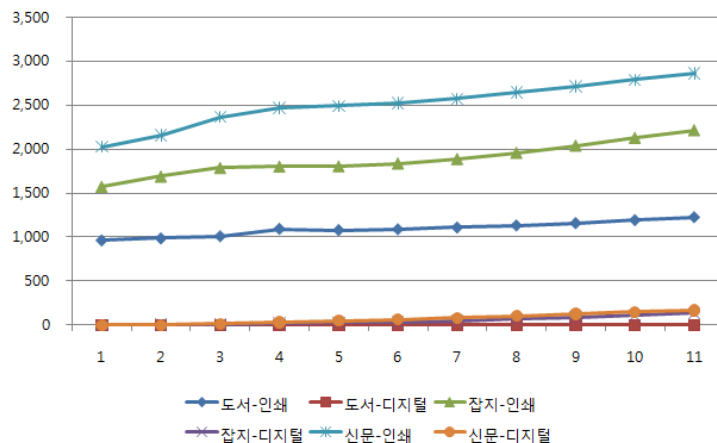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서	965	987	1,012	1,094	1,081	1,090	1,109	1,132	1,158	1,191	1,224	2.3%	
잡지	소계	1,574	1,695	1,795	1,821	1,832	1,871	1,933	2,025	2,128	2,238	2,347	4.6%
	인쇄물	1,573	1,690	1,787	1,803	1,806	1,838	1,888	1,957	2,039	2,126	2,213	3.8%
	디지털	1	5	8	18	26	33	45	68	89	112	134	32.8%
신문	소계	2,027	2,156	2,379	2,498	2,538	2,590	2,657	2,746	2,838	2,934	3,030	3.2%
	인쇄물	2,027	2,156	2,363	2,466	2,489	2,523	2,572	2,642	2,713	2,786	2,860	2.5%
	디지털	0	0	16	33	49	67	84	104	126	148	170	20.6%
인쇄물 소계	4,565	4,833	5,162	5,363	5,376	5,451	5,569	5,731	5,910	6,103	6,297	2.9%	
디지털 소계	1	5	24	50	75	99	129	172	215	260	304	25.1%	
합계	4,566	4,838	5,186	5,413	5,451	5,550	5,698	5,903	6,125	6,363	6,602	3.5%	
전년대비성장률		6.0%	7.2%	4.4%	0.7%	1.8%	2.7%	3.6%	3.8%	3.9%	3.7%		

자료원: PWC(2010);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분야별 성장률 추이를 볼 때 중남미권은 디지털 시장뿐 아니라 인쇄물 시장에서도 모든 분야가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디지털 잡지 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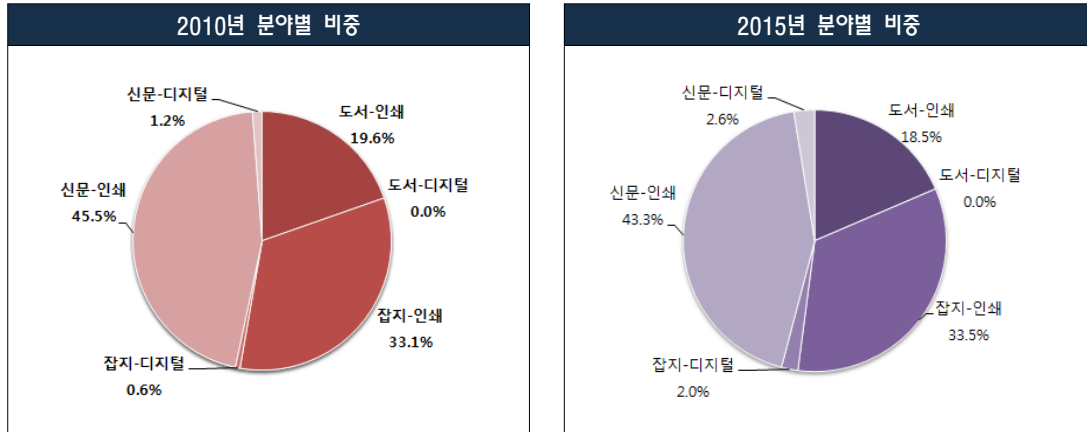
[그림 III-37] 중남미권 출판 시장 부문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중남미권 출판 시장의 2010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쇄물 신문 시장이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이 비중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5년에는 각 분야별 디지털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인쇄물 비중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2015년 디지털 신문 시장은 전체 출판 시장의 2.6%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III-38] 2010년과 2015년 중남미권 출판 시장 분야별 비중



브라질은 2013년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주빈국이며, 브라질에는 연간 5종 이상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545개이며, 이들은 브라질 (독립) 출판사 연맹(LIBRE), 브라질도서회의소(CBL), 브라질 도서출판조합(SNEL)의 세 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며, CBL에 가입된 업체가 630개에 달한다¹⁾. 그밖에 관련기관으로 브라질출판사연합(SNEL), 국립도서판매업협회(ANL), 국립도서관재단(FBN) 등이 있다. 브라질 경제조사연구소(FIPE)에 의하면 2007년 45,092종, 351,396,288권의 도서가 출판되었으며, 총 판매액은 2008년 30억 헤알(약 16억 달러)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도서 판매 시장 규모는 25억 달러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교육 및 출판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에는 약 3,000개의 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점들은 대부분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대형 그룹에 속해 있다. 남동부가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여기에 서점의 56%가 소재해 있는 반면에 북부 지역에는 단 3%만 분포해 있다. 브라질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연간 4.7권이며, 학교 교재를 제외하면 1.3권이다.

최근 브라질 도서 판매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방문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6년 총 매출의 5%이던 비중이 2008년 13%, 2009년 17%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이 수치는 다른 부문을 잠식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성장 속에서 특히 방문판매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브라질 도서 방문판매 협회(Associação Brasileira de Difusão do Livro - ABDL)에 의하면 브라질에는 도서 방문판매업체가 약 30,000개 있는데,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업체는 화장품업체인 Avon이다. 광범위한 판매망으로 인해 도서판매업체에게 중요한 협력사다.

1) 이하 브라질 만화 시장 동향의 자료원은 프랑스 국제도서사무국(BIEF)(해외출판정보, 2010.9에서 재인용) 및 Publishing Perspectives임

연간 도서 판매량: 3억 8,600만 권으로 신간, 비신간별 발간 종수와 판매부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39] 신간/비신간 출판 현황 (2008/2009년)

구분	발간종수			판매부수		
	2008	2009	성장률(%)	2008	2009	성장률(%)
신간	19,174	22,027	14.9	130,109,195	154,471,507	18.7
비신간	31,955	30,483	-4.6	210,165,000	231,895,629	10.3
합계	51,129	52,509	2.7	340,274,195	386,367,136	13.6

자료원: CBL · SNEL · FIPE (2010)

브라질 도서 출판 시장에서 신간과 재판 이상의 출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신간의 발간 종수가 더 많이 증가하였고, 판매부수에서는 신간이 18.7%, 비신간이 10.3% 증가, 전체적으로는 13.6%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BL · SNEL · FIPE, 2010).

[그림 III-40] 편·역서 및 브라질 저자의 원서 출판 현황 (2008/2009년)

	발간종수			판매부수		
	2008	2009	성장률(%)	2008	2009	성장률(%)
편·역서	6,626 (13.0%)	5,807 (11.1%)	-12.4	20,693,392 (6.1%)	28,342,446 (7.3%)	37.0
자국저자	44,503 (87.0%)	46,703 (88.9%)	4.9	319,580,803 (93.9%)	358,024,690 (92.7%)	12.0
합계	51,129 (100.0%)	52,509 (100.0%)	2.7	340,274,195 (100.0%)	386,367,136 (100.0%)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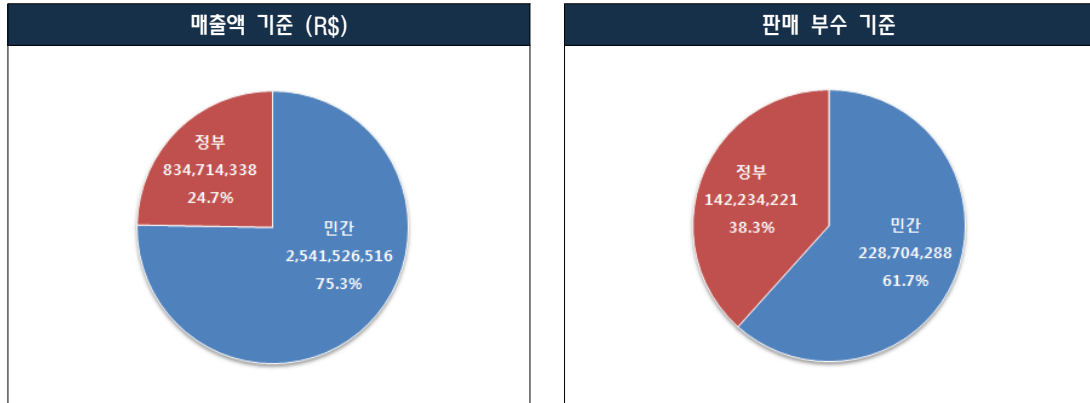
자료원: CBL · SNEL · FIPE (2010)

브라질의 693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출판되는 서적 중 편·역서의 비중은 발행 종수의 11.1%, 판매부수의 7.3%이며, 2008년과 2009년 데이터를 비교할 때 발간종수 기준으로는 편·역서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부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CBL · SNEL · FIPE, 2010).

구분	매출액 (R\$)			판매부수		
	2008	2009	성장률(%)	2008	2009	성장률(%)
민간	2,436,606,207.66	2,541,526,516	4.3	211,542,458	228,704,288	8.1
정부	869,351,280.59	834,714,338	-4.0	121,722,061	142,234,221	16.9
합계	3,305,957,488.25	3,376,240,854.19	2.1	333,264,519	370,938,509	11.3

자료원: CBL · SNEL · FIPE (2010)

[그림 III-41] 브라질 도서 판매처의 정부/민간 비중 (2009)



자료원: CBL · SNEL · FIPE (2010)

브라질의 출판물 시장은 전체 판매부수의 60%, 판매수입의 75%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민간 출판물 시장(서점, 대형 유통업체, 가판점, 온라인 서점, 방문 판매 등을 포함)과 판매부수의 40%, 판매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연방정부 대상 직접 판매 시장으로 구분되며, 정부 대상 판매 시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브라질 출판 시장의 특징이며, 정부 구매 프로

그램에 의한 판매는 각 급 학교에 공급되는 교과서에 해당하나, 아동서로서 만화 또한 다수 이 프로그램에 의해 판매된다.

[그림 III-42]

브라질도서회의소



CBL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북페어로 알려져 있는 상파울루 국제북페어를 주관하며, SNEL은 리우국제북페어를 주관한다.

최근 브라질 출판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저작권법 개정이다. 창작자 및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나 포맷 전환, 편집, 교육 목적의 콘텐츠 이용, 문화유산 보존,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 저작권료 등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자, 4년 이상의 논의 끝에 2010년 6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고, 의련수렴 기간 동안에 열린 상파울루국제북페어(2010.8.12.~22)에서 이와 관련된 포럼도 개최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디지털 출판이며 제1회 국제 디지털 도서 회의가 상파울루 북페어에 앞서 열렸다. 그러나 아직 브라질 e-book 시장은 매우 적다. 세 개의 e-북서점이 있을 뿐이다.

브라질 일간지는 300여종에 달하며, 브라질의 주요 일간지로는 O Estado de Sao Paulo, Folha de Sao Paulo, Jornal do Brazil, O Globo 등이 있으며, 주요 월간지는 Manchete, Veja 등이 있다. 브라질 신문 시장의 경우, 국토 면적과 인구에 비하여 발행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디지털 시장의 급성장 잠재력을 시사하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표적인 신문 발행사는 미디어그룹인 Grupo Estado를 들 수 있다.

한편 칠레도서회의소(La Cámara Chilena del Libro)에 따르면 칠레의 연간 도서시장은 약 1억2천만 달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부의 교과서 시장이고, 장르별로도 교육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칠레 정부는 연간 8백만~1천2백만 권의 도서를 초등 공교육용으로 구매한다. 이는 약 2백만 명의 학생에게 연간 4~6권의 교과서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출판업체의 사업 영역 또한 교육 출판물 시장과 비 교육 출판물 시장으로 양분된다. 교과

서 시장 다음으로 큰 부문은 픽션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과서는 대체로 자국에서 출판되는 반면에 픽션 도서는 대부분이 수입된다. 교과서와 픽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도서 시장의 90%로 보고되고 있다.